



① 「보험업법 시행령」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”에서 “보험회사”로 변경됩니다.

- (현행)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”에 대해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(개정)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“보험회사”에 대해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.

- (현행)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(25%를)를 '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('17년 시행령 개정)
- (개정)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('21년 66% → '22년 50% → '23년 33% → '24년 25%)

※ (참고)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,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“카드슈랑스 활성화 TF”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·추진할 계획

③ 보험요율 산출기관(보험개발원)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.

- (현행)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‘순보험요율’ 산출·검증, ‘보험에 대한 조사·연구’ 등을 규정

\* 보험금의 지급에 총당되는 보험료(순보험료)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→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

- (개정)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(i)차량정보 관리\*(부품정보, 사고기록정보 등), (ii)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\*\*를 추가

\* [차량정보 관리]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, 수리기간 단축

\*\* [차량수리비 연구]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'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, 법령상 근거 부재

- 이번에 개정되는 「보험업법 시행령」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### 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금리인하요구권** :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－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'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%,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%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

<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(단위 : 건) >

구분		'17년	'18년	'19년
총계	접수건수	8,306	12,167	34,705
	수용건수	4,906	6,444	18,801

\* **보험업법 제110조의3(금리인하 요구)**

-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-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